

기획특집

실용적 제주 미래가치 창출방안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기춘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10대 정책 아젠다’를 새로운 정부가 수용하고 추진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주발전전략으로 생각되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아젠다도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과 제주도민의 숙원을 들어 주고 해결해 주고자 하는 진정성만 있으면 될 것이다

I. 문제제기

1964년 제주도건설종합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197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 1994), 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02) 등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되었고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11)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지역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계획(2003, 2008) 등 산업발전계획과 1단계 광역경제권 발전계획(2009) 등 발전계획이 수립·시행되었고 2단계 광역경제권 발전계획(2012)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경제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소득수준 상승으로 잠재적 성장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이후 쇠퇴지역→성장지역→정체지역을 거쳐 최근에는 다시 쇠퇴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1인당 총생산과 1인당 개인소득의 변화 패턴에 근거하여 지역을 실속형, 유출형, 성장형, 쇠퇴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제주지역은 2000년대 산업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개인소득도 감소하는 즉 외형과 실속 모두 감소하고 있는 쇠퇴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요약하면, 제주지역은 외부 의존형 산업구조로 인하여 1990년대 초 이후에는 총생산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도 함께 하락하고 있고,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에 편중되어 있어 신성장의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는 자연환경, 인프라, 인적구성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보유한 자산의 강약점을 감안하여 2차 계획기간(2012-2021년) 10년은 중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 역량을 제고하는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변 경쟁도시와 대등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중장기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인구, 지역 내총생산(GRDP) 등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2021년 목표지표를 도출하였다. 중장기 목표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상주인구는 70만명, 2021년 GRDP는 21조원, 1인당 GRDP 3만달러, 산업별 GRDP 비중은 1차 산업 10%, 2차 산업 6%, 3차 산업 84%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주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먼저 살펴보고, 미래 트렌드에 따른 제주미래의 변화에 근거하여 향후 이러한 중장기 목표지표를 달성하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주가 취해야 할 미래발전 전략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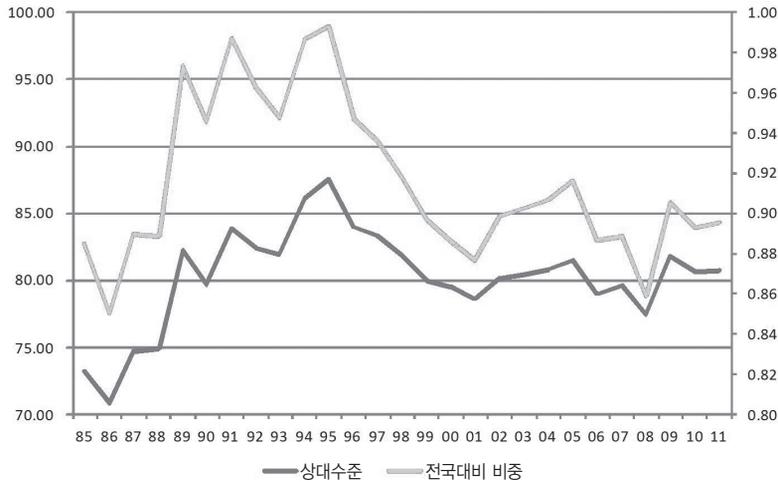
II. 제주경제의 과거와 현재

제주지역에서 다양한 종합계획 및 산업발전계획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경제의 주요한 특징-규모의 영세성, 역동성 상실, 불안정 성장-은 개선되지 않고 고착화되어 가고 실정이다.

먼저 제주경제 규모의 영세성을 제주지역의 GRDP(당해년가격 기준)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그림 1>에서 전국대비 비중)을 통해 살펴보면 이 비중이 1985년 0.88%에서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5년 0.99%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하향하였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여 2011년 현재 0.9%를 기록하여 26년 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의 1인당 GRDP(당해년가격 GRDP를 추계인구로 나누어 산출)를 전국평균(=100)과

비교한 상대수준(〈그림 1〉에서 상대수준)을 살펴보면 1985년 73.2% 수준에서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5년 87.5% 수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하향하였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여 2011년 현재 80.7% 수준으로 26년 전보다 7.5%p 상승하였으나 아직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림 1〉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의 추이(1985-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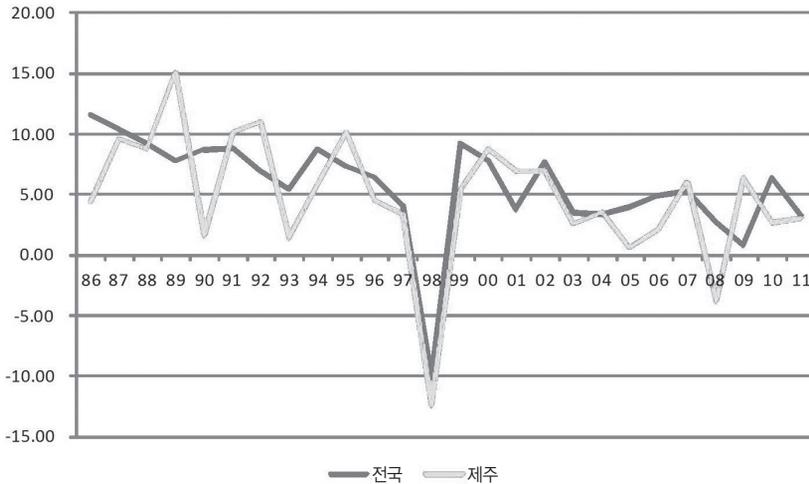
다음으로 제주경제 역동성 상실(저성장성)을 제주지역 GRDP(2005년가격 기준)의 연평균성장률을 통해 살펴보면(〈표 1〉 참조) 산업경쟁력 약화로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전국의 경제성장률과 격차를 보이며 역동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제주 GDRP의 연평균성장률은 전국의 연평균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85-'11년의 경우 제주는 5.14% 성장한 반면에 전국은 6.11% 성장하여 그 격차가 0.97%p에 이르고 있다.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80년대는 제주와 전국의 성장률 격차가 0.29%p이었으나 90년대는 그 격차가 1.58%p로 크게 확대되었고, 2000년대는 격차가 0.68%p로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전국 및 제주 GRDP의 기간별 연평균성장률

구분	전국(A, %)	제주(B, %)	차이(B-A, %p)
85-11년	6.11	5.14	-0.97
85-89년	10.8	10.51	-0.29
90-99년	6.02	4.44	-1.58
00-11년	4.67	3.99	-0.68

마지막으로 제주경제의 불안정 성장을 제주지역 GRDP(2005년가격 기준) 성장률의 변동성을 통해 살펴보면(〈그림 2〉 참조) 제주경제는 산업의 양극화 현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등 불안정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전국 및 제주 GRDP의 성장률 추이(1986-2011)



이를 성장률의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살펴보면(〈표 2〉 참조) 제주 GDRP 성장률의 표준편차(표준편차가 클수록 불안정성이 높음)는 전국 GRDP 성장률의 표준편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85-'11년의 경우 제주는 5.3%인 반면에 전국은 4.16%로 그 격차가 1.14%p에 이르고 있다.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80년대는 제주와 전국의 표준편차 격차가 2.75%p에서 90년대는 그 격차가 1.05%p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2000년대는 격차가 1.37%p로 다시 확대되어 여전히 불안정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표 2〉 전국 및 제주 GRDP의 기간별 성장률의 변동성

구분	전국(%)	제주(%)	차이(%p)
85-11년	4.16	5.3	1.14
85-89년	1.63	4.38	2.75
90-99년	5.71	6.77	1.05
00-11년	2.06	3.43	1.37

Ⅲ. 미래 트렌드와 제주의 미래

미국발 금융위기와 남유럽발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미래예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한편으로는 빛의 속도에 비유될 만큼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준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래변화를 연구하고 예측하는 국내외 관련기관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단체는 1996년에 창립되어 세계 32개의 지부를 통해 전 세계 2,500여명의 학자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 소재 글로벌 미래연구 싱크탱크인 밀레니엄프로젝트(The Millennium Project)와 1966년에 설립되어 80개국 약 25,000명의 전문가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세계미래회의이다.

밀레니엄프로젝트는 미래의 잠재적 도전과제 및 부상하는 글로벌 이슈 등을 통해 미래 트렌드를 파악하고 향후 미래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2009년 7월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미래학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15대 지구적 도전과제' 및 '미래사회 변화 동인'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15대 지구적 도전과제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위생적인 수자원 확보, 인구증가와 자원배분, 민주주의의 확산, 장기적 시각에 입각한 정책결정, 정보통신 기술융합, 빈부격차 완화, 질병의 위협,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 역량 제고,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사용 억제, 여성권의 신장, 국제 범죄조직 확산, 에너지 수요 증가, 과학기술 발전, 윤리적 의사결정 등인데 이 중에서 제주지역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전과제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수자원 확보, 인구문제,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 정보통신 기술융합, 에너지 수요, 과학기술 발전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산업연구원의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자료에 따르면 경제 및 산업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15대 메가 트렌드로 세계경제의 통합, 세계경제의 역학구도와 비교우위 구조의 변동, 인구구조의 고령화, 환경과 천연자원 문제의 심화,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경영의 신조류(지식경영 및 윤리경영),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의 성숙, 바이오 경제의 도래, 기술의 학제간 융합(IT·BT·NT·신소재 기술의 융합), 국가전략기술의 부상, 기술패권주의(표준과 지식재산권), 소비패턴의 변화, 새로운 문화조류의 형성,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 전망,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등인데 이 중에서 제주지역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메가 트렌드로 요약해 보면 인구구

조의 변화, 기술진보 트렌드, 세계경제 통합 및 국제 분업, 환경과 자연, 지역 혁신과 균형발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미래 트렌드가 제주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주의 미래 발전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시간의 범위를 중기(향후 5년) 및 장기(향후 10년)로 구분하여 미래발전 전략을 살펴보는데 전혀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기 보다는 그 동안 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쳐 확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그 외 중장기 제주 미래발전 전략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V. 제주의 미래발전 전략

1. 중기전략(향후 5년)

201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제주도는 해방과 대한민국 건국의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을 경험했으나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제주도는 노무현정부와 비교하면 이명박정부 5년 동안 홀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새로운 정부는 과거를 깔끔히 정리해 줌으로써 제주가 제주의 미래 건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가 16개 지자체 중의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건설의 아이콘이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건설이 제주의 지역발전전략이 아니라 국가발전전략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친환경적 도시여건, 독특한 섬 문화, 천혜의 자연경관 등을 기반으로 동아시아의 허브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중화권 시장 공략의 최적지,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제도적 특례를 보유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02), 세계자연유산 등재('07), 세계지질공원 인증('10) 등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11), 람사르 습지 보유 등 환경자원의 세계적 가치를 인증 받은 세계적 환경도시, 세계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동아시아 평화협력·교류의 중심지 등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가치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기자협회와 공동으로 국가가 제주를 꼭 해야 할 약속과 실천으로서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10대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였다. 10대 아젠다는 신공항 조기건설, 세계환경수도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 스마트그리드 융합형 거점도시 조성, 청정 LNG 연료 도 전역 조기보급 및 LNG 발전소 건설, 도민 명예회복을 위한 4·3의 완전 해결, 제주 관광면세특구 지정, 제주형 녹색산업 육성 등인데 이 중에는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당장에 실현 가능한 아젠다도 있고, 향후 5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아젠다도 있으며, 향후 5년 내에 달성할 수 없지만 시작할 수 있는 아젠다도 있다. 또한 대규모 재정투입이 있어야만 실현 가능한 아젠다가 있는가 하면 제도개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아젠다도 있고, 제주지역의 발전에 국한된 아젠다가 있는가 하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젠다도 있다.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10대 정책 아젠다’를 새로운 정부가 수용하고 추진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주발전전략으로 생각되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아젠다도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과 제주도민의 숙원을 들어 주고 해결해 주고자 하는 진정성만 있으면 될 것이다.

2. 장기전략(향후 10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시행되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보면 국제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환경이 조성되었고, 내·외국인 관광 유인정책이 강화되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7대 선도 프로젝트 중 일부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으며, 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 제시된 관광, 의료, 교육, 청정 1차 산업 등 4대 산업에 첨단산업을 추가하는 ‘4+1’전략, 7대 선도 프로젝트에서 조정된 6대 핵심 프로젝트와 5대 전략 프로젝트, 콜센터 유치 사업 등 8가지 추가 전략사업 등의 추진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전략사업은 총 5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 선정되었다. 1단계에서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과 미션 달성을 위한 사업영역을 도출하고, 2단계에서는 한국의 신성장동력, 주요국의 전략사업, 글로벌 기업의 미래사업, 국내·외 기관의 유망사업 등 다양한 기관이 제시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을 총 망라하여 제주에 응용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국내 최초이면서 미래형 사업 중 제주에 적합한 신사업을 새롭게 발굴하였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기존의 6대 핵심, 5대 전략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제2차 계획에서 계승발전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5단계에서는 2-4단계에서 도출된 후보 중 전략사업으로

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8대 전략사업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2차에 걸친 중간 보고 및 공청회를 전후하여 도청, 도내 각종 기관 및 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4개 전략사업을 추가하여 12개 전략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 뷰티케어 빌리지 조성, Edu-MICE 비즈니스, IBE R&BD 클러스터 조성, 1차 산업의 수출산업화 사업, 제주 신공항 조기 건설, 제주투자은행, 그린스마트시티 제주, e-스포츠·레저벨리 조성 사업, 10만 인력 양성 사업, 세계환경수도 조성,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등 전략사업으로 제시된 12개 사업들이 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평가 결과 제시되었던 개선사항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제주의 경제 활성화, 성장 기반 강화, 삶의 질 향상, 지역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영역에 폭넓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3. 추가 중장기 전략

(1) 신성장동력의 발굴

지금까지 제기된 신성장동력(교육산업, 의료산업, 녹색성장산업 등) 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신성장동력은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창조산업과 제주형 제조업이다.

첫째는 창조산업의 육성이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창조경제시대가 부각되고 있다. 국력의 척도가 군사력, 경제력에서 문화력, 창의력이 중시되는 소프트파워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산업이 창조산업의 핵심으로서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R&D, 출판, 소프트웨어, TV와 라디오, 디자인, 음악, 영화, 장난감 및 게임, 광고, 건축, 공연예술, 공예, 비디오게임, 패션, 미술 등이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콘텐츠 산업으로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문화향수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영국(Creative UK, 1998), 미국(Creative America, 2000), 중국(文化創意産業, 2005) 등 각국이 지적재산기반의 콘텐츠와 문화예술, 미디어, 관광산업을 연계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및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창조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창조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이 높은 산업이며, 근거리 대면접촉과 네트워크가 요구되는 도시형 집적산업이며, 기술·문화·예술·인문이 융합된 퓨전형 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쇠퇴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지역의 예술 및 콘텐츠를 연계해 산업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가 추진하기에 적합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제주형 제조업의 육성이다. 제주형 제조업이란 “제주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제주지역에서 생산하거나, 제주의 자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융복합을 통해 제주에서 생산하여, 제주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6차 산업화가 가능한 제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형 제조업은 제주의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융복합이 가능한 업종,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업종을 대상으로 기술기반 구축 사업, 핵심역량 강화 사업, 경영·기술 지원 사업,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제주형 제조업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주형 제조업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난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제주형 지식생태계 조성

지식생태계는 지식의 창출, 순환, 활용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으로 지식의 창출, 활용, 유통 및 확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집단 및 이들 간 상호작용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식생태계의 핵심 주체는 기업과 사람이다. 지역의 지식생태계에서는 지역 기업과 지역 인재들의 지식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식이 지역 내에서 그리고 타 지역과의 상호작용 하에 창조, 활용, 학습, 축적, 공유되고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이 제고되고 지역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지식경제시대에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혁신적 기업이 승자가 되는데 혁신적 기업은 혁신적인 기업문화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식생태계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 혁신적 기업 및 창의적인 인재들은 혼자 힘으로 지식생태계를 만들 수 없으므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원되고 규제가 적은 지식생태계로 모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혁신적인 기업과 창의적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의 지식생태계 간 경쟁이 치열하게 될 것이므로 제주가 선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차별성이 있는 제주형 지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 인프라, 연구인력, 연구지원을 위한 특화된 제도와 네트워크 등 제주 지식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거점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주센터, 국가 태풍센터, 국립 기상연구소, 국립중자원 제

주지원 등의 설치 및 이전 성과를 이미 거두었지만 그 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분원 유치 및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환경 및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기후변화대응 환경보건 연구센터와 같은 국가의 전략 연구소 및 국립제주녹색과학기술원을 유치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용암해수단지,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감귤식품산업단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및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국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특히 제주출신의 우수인력을 유치하여 제주지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Jeju Brain Return(제주우수인력유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가칭) 제주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영국,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들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이 아니라 미래예측에 기반을 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봄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기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차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슈를 발굴하여 대응책을 모색해 오고 있다. 국민, 학계, 전문가,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 변화의 추세를 분석하고 장기 미래예측 전망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에 근거한 범국가적 미래전략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다.

국가전략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전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다양한 분야 내의 전략들이 근시안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칭) 제주 미래기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미래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경영학, 공학 등 분야별 전문가, 기업가, NGO, 언론가 등 도내 및 국내외 전문가를 위촉하고, 체계적·융합적·과학적 연구 및 접근방법의 모색을 통하여 미래의 잠재적 위협 요인에 대응하고 기회 요인을 발굴하는 등 미래예측 역량 및 대비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제 간·분야 간 통합적인 미래 연구를 위해 미래연구기관 간 협동연구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폭넓은 미래연구 성과를 축적해야 할 것이다. (가칭) 제주 미래기획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한다면 지역발전전략의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 확보,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 제고, 지역발전전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사이의 전략적 연계, 도정 운영의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적 관점의 확대, 미래비전과 시스템적·전략적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도전하느냐에 따라 제주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제주가 쇠퇴하고 소멸하는 미래로 영원한 변방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생존하여 번영하는 미래로 외국의 경쟁 국가를 따라잡고(catch-up), 뛰어넘어(leapfrogging)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제주지역 내 사회적 갈등이 아직 진행 중이다. 이제 창조적 공존(&+)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A와 B의 대립하는 가치를 동시에 취해 시너지를 내는 것을 창조적 공존이라고 하고 이를 기호로 나타내면 &+인데 ‘함께(and)’와 ‘플러스(+)'가 합성된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이익 극대화에 집착한 결과 다 같이 손해를 보게 ‘비타협의 대결 게임’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협조적 게임’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해 내는 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JDI**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2010),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 기획재정부(2011),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0.8), 창조경제시대 지육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 미래기획위원회(2009), 미래예측방법론
- 미래기획위원회(2009), 자본주의의 미래
- 미래기획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2008.9), 2020/2050 미래 전망 토론회
- 박영숙 외(2012), 유엔미래보고서 2030
- 이용우(2012.9), 메가트렌드와 제주권의 미래, 국토정책 지식공유 포럼
- 삼성경제연구소·제주발전연구원(2011),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 제주발전연구원·제주도기자협회(2012.8),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10대 정책 아젠다